

고연비 차량의 경연장이 된 2012 북미 모터쇼

미국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2012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2012

- 개최기간 : 2012년 1월 9일 ~ 1월 22일
- 개최장소 :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Cobo Center
- 주최자 : NAIAS
- 개최규모 : 725,000 S/F
- 개최주기 : 매년
- 주요 전시품목 : 40개 이상의 신차발표



GM 캐딜락 ATS



포드 퓨전



벤츠 SL 쿵



도요타 하이브리드 NS4



BMW i8 콘셉트카(왼쪽) & i3 콘셉트카

자동차의 연비절감 기술 및 각종 친환경 기술은 자동차 전시회를 친환경 전시회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월 9일부터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는 무려 40여 개의 신차가 출시되어 세계 3대 모터쇼인 디트로이트 모터쇼(이하 모터쇼)의 자존심과 되살아나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도 대거 출시되었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빅3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효율을 대거 높인 소형차를 출시했다는 것이다. 친환경으로 가는 길, 2012 모터쇼를 다녀왔다.

넓어진 하이브리드차 구입폭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자동차 전시회의 화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도 진일보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출시되었다. 미국 업체에서는 포드가 중형차량인 하이브리드 모델 '퓨전'을 출시했다. '프리우스'로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강호 도요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NS4'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미국 최초로 공개된 기존 프리우스의 소형차 모델인 '프리우스C'는 \$19,000 (한화 약 2,100만원)의 가격의

차로 21.3km/ l 의 연비를 자랑했다. 유럽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는 럭셔리클래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2개 차종을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였는데 'E300 블루텍 하이브리드'는 4.2리터로 100km를 주행하는 모델로 2012년내에 유럽에 출시될 예정이고 'E400 하이브리드'는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으로 출시된다. BMW는 '액티브 하이브리드5'와 BMW의 첫 양산형 전기차 i3 콘셉트카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스포츠카 i8 콘셉트카를 소개했다. 소형차에서 대형차, 스포츠카와 고급차에 이르기까지 이번 전시회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하이브리드에 뒤지지 않는 고효율 차량의 등장

이번 모터쇼에서 특히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탁월한 연비의 고효율 차량 출현이다. 빅3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의 업체들은 과거의 차량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연비 차량을 출시했다. 특히 고급차와 대형차를 만들던 GM의 캐딜락 브랜드가 이번에 선보인 컴팩트 차량 ATS는 리터당 17km(40mpg)를 운전할 수 있는 효율성을 보여 이번 오토쇼의 이변으로 등장했다. ATS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의 자동차들의 경향을 대표하는 예로서, 이번 모터쇼의 차량들은 소형화, 고성능화,

고효율화되는 추세로, 이런 특징은 세단은 물론 심지어 SUV에서도 나타났다. 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이 이번에 출시한 ATS는 터보차지, 4기통 엔진으로 무려 270마력을 내는 고성능이면서도 강력한 연비효율성을 실현했다.

자동차 회사들의 고연비를 향한 노력은 심지어 스포츠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번 모터쇼에서 벤츠는 연비가 향상된 SL 쿵을 선보였다. 모터쇼에 참가한 다임러벤츠 AG의 최고경영자인 제츠체(Dieter Zetsche) 씨는 이 새로운 11만 9천 달러짜리 (한화 약 1억 3천만원) 쿵은 이전 모델보다 가볍고 연료효율성도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차량의 경량화로 인해 연료 효율성을 대폭 높였으며, 2013년형 SL은 6기통 엔진에 306마력의 힘을 내면서도 연료효율성은 기존 모델보다 22%나 개선된 15km/l (35mpg)를 나타낸다고 한다.

친환경 고효율차에 흔들리는 하이브리드의 위상

포드사는 자사의 대표적인 SUV인 이스케이프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단종을 선언했다.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0년에 전체 차량의 2.4%, 2011년에는 2.2%로 저조한 판매량을 보이며 수량과 점유율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

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이 전기모터, 배터리 등에 추가적인 부담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가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뉴욕의 컨설팅 업체 Booz & Co.의 부회장인 코윈(Scott Corwin)씨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선택은 차량구입에 들어가는 돈이 관건이었는데,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혼다 자동차의 씨빅은 시내와 고속도로 모두 리터당 14킬로(32mpg) 가까운 연비를 기록하는데, 같은 차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18.7킬로(44mpg)를 간다. 환경보호단체에 의하면 이 차량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할 경우에 연간 약 \$322 정도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최초 차량 구입 가격을 고려할 때, 최소 6년 이상을 타야 비로소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전시회에 참석한 자동차 판매 회사 오토네이션의 대표인 마이크 잭슨(Mike Jackson) 씨에 따르면 자신의 딜러샵을 방문하는 고객 중 오직 2.5%만이 하이브리드를 구매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기존에 발표된 기술이 그다지 새롭지 않다는 것

을 발견하고, 하이브리드 구입시 비용 면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프리미엄의 실종

크라이슬러 그룹의 닛지(Dodge) 브랜드 대표인 리드 빅랜드(Reid Bigland) 씨는 이번 모터쇼에서 리터당 17km (40mpg)의 연비를 자랑하는 닛지의 신차인 닛트(Dart)를 소개하면서 금년 2분기에 이 차량을 생산할 때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격경쟁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연비경쟁을 둘러싼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은 내연기관 엔진의 고성능화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며, 내연기관의 직분사-터보차저-트랜스미션의 발달로 인해 그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향후 자동차 시장의 승자는?

GM과 크라이슬러 회생 자문단이었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사비에르 모스케(Xavier Mosquet) 씨는 앞으로 10년 간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 효율성에 있다고 확신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동급 차량 가격보다 10,000달러 정도 더 비싸지만, 수년 내에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내연기관 차량은 자동차 한 대당 2,50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2020년까지 연료 효율성을 40%나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2 북미자동차 전시회가 남긴 것

자동차회사의 입장에서 하이브리드 시장의 수효는 작지만,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효과,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선전물의 효과는 여전하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의 개발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내연기관차량의 연비효율성과 가격경쟁력은 더욱 발전해서 소비자들은 더욱 친환경적인 차량을 탈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차의 다양화나 내연기관차량의 고효율화나,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소비자와 자연환경은 웃음지를 것이다. 2012년 북미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었다.